클래식 명곡 산책 - 20
– 첼로 협주곡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음악듣기
bitly.kr/elHGY0

제 주변에서 보면 가장 연주하고 싶은 악기로 첼로를 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따뜻한 기분을 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첼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독주 악기로서 무대에 서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첼로 독주가 관현악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세상에는 훌륭한 첼로 협주곡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첼로 협주곡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첼로 협주곡 연주 모습 / 출처 : stringsmagazine.com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
: 두 대의 첼로와 현을 위한 협주곡 사단조, 리옴번호 531

Antonio Vivaldi : Concerto for two celli and strings in g minor, RV 531

안토니오 비발디 / 출처 : wikipedia.org

베네치아의 '빨강머리 신부' 비발디는 어려서부터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웠습니다. 1693년에 수도사가 되고 10년 후에 사제로 서품되었는데요, 이때부터 1740년까지 베네치아 구빈원 부속 여자음악학교 바이올린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비발디의 작품 대부분은 바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었죠.

비발디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500곡이 넘는 협주곡을 포함하여 무려 800곡이 넘는 굉장한 양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의무적인 작곡 분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빠른 작곡 속도 덕택에 이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악보를 옮겨적는 사보가 보다도 더 빨리 곡을 썼다고 하니, 그 속도가 짐작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숫자에서 보듯이, 비발디의 작품 목록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협주곡입니다. 비발디의 협주곡이 갖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세 악장 구성은 이후 협주곡 양식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은 비발디의 수많은 협주곡 중 단 한 곡뿐입니다. 이 곡은 비발디의 다른 곡에 비해, 심지어 첼로 협주곡이나 바순 협주곡에 비해서도 상당히 둔한 저음 지향적인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비발디가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악장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무거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크 시대에서 폭풍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하강 음형도 등장하여 긴장감을 더합니다. 2악장 '라르고'(매우 느리게)는 폭풍우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두 여행객의 노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3악장에서 폭풍우 속으로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1732~1809)
: 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호보켄번호 VIIb:1

Franz Joseph Haydn : 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Hob. VIIb:1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 출처 : wikipedia.org

1961년,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필사본 악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하이든의 초기 첼로 협주곡이었죠! 에스테르하지 궁정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이었던 요제프 바이글의 서명과 하이든이 1765년 말에 작성한 작품 목록에 적혀있는 각 곡의 첫 두 마디와 대조하여, 이 악보가 하이든의 진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든은 1761년에 에스테르하지에 왔고, 작품목록은 1765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첼로 협주곡 1번>은 이 둘 사이에 작곡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하이든은 과거의 바로크 전통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던 고전 형식의 절충점에 있었는데요, 이 곡에는 이러한 하이든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독주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관현악이 교대하면서 진행하는 리토르넬로 형식은 이탈리아의 바로크 협주곡의 전통이라면, 부점 리듬의 연속은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연상시키고, 소나타 형식을 사용한 것은 고전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다수의 초기 협주곡들보다 유독 이 곡만이 눈에 띄게 자주 연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첼로 협주곡 레퍼토리가 흔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곡이 독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이든이 정신적 지도자로 여겼던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첼로 협주곡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1악장에서 곡의 시작과 함께 울려 퍼지는 관현악의 당찬 기운이나, 상승하는 부점 리듬과 하강하는 유려한 멜로디를 연결하여 극적 대비를 강조한 것, 그리고 우아한 기품을 지니면서도 화려한 기교를 드러내는 독주 등 CPE 바흐를 연구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2악장에서 호흡이 길고 느리게 움직이는 첼로 독주의 노래하는 듯한 멜로디와 3악장에서 큰 폭의 다이내믹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추진력도 그러하죠. 그럼에도 시작과 함께 공간을 채우는 밝은

분위기와 특유의 음악적 위트, 그러면서도 잃지 않는 고전의 우아함, 3악장에서 장조와 단조를 수시로 넘나드는 당돌한 전조 등이 하이든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카미유 생상스(1835~1921)
: 첼로 협주곡 1번 가단조, 작품번호 33 (1872)
Camille Saint-Saëns : Cello Concerto No. 1 in A minor, Op. 33

카미유 생상스 / 출처 : wikimedia.org

'첼로 협주곡'이라는 장르는 까다로운 장르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18세기 초 비발디를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첼로를 독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와 실제가 있었음에도, 서양음악사의 최고봉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단 한 곡의 첼로 협주곡도 남기지 않았죠. 19세기에도 소수의 작곡가만이 한두 곡 정도만을 작곡했을 뿐입니다. 드보르자크는 의뢰를 받았을 당시 첼로는 독주에 적합한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었다고 하죠. 그래도 슈만, 랄로, 생상스, 드보르자크, 엘가 등 낭만시대 거장들의 첼로 협주곡은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 중 카미유 생상스는 첼로 협주곡을 두 곡이나 남겼습니다. 이들은 30년 터울이 있는데요, 그 중 환상적인 낭만이 가득한 1번이 압도적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이 곡은 37세 때인 1872년에 완성되었으며, 이듬해 1월 19일에 초연되었습니다. 생상스는 유능한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였지만 현악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면모는 이 <첼로 협주곡 1번>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낭만적인 격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아름다운 선율미와 활력이 넘치는 리듬과 극적 진행으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명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협주곡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가 쉼 없이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느린 악장 부분이 없어 생상스의 일탈을 볼 수 있습니다.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관현악의 강한 화음과 함께 셋잇단음표로 급히 하강하는 첼로의 힘찬 제1주제로 시작합니다. 제2주제는 매우 서정적인 첼로 선율로, 은은한 현악 반주를 배경으로 연주됩니다. 이 두 주제를 바탕으로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친 후, 첼로의 서정적인 선율로 마무리합니다.

2악장은 빠른 템포로 지시되어 있으며 약음기를 단 현악 앙상블이 미뉴엣 스타일로 연주합니다. 이에 반해 첼로 선율은 호흡이 길고 여유가 있어서, 약간이지만 느린 악장의 역할을 하죠. A-B-A 형식의 스케르초임에도, 일반적인 스케르초처럼 중간의 B 부분이 앞뒤의 두 A 부분과 그다지 대조적이지 않습니다.

3악장은 관악기가 1악장의 제1주제의 단편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악장의 첫 주제를 1악장 주제로 시작하는 모습은 19세기 후반 이후 낭만 시대의 단악장 협주곡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제2주제는 이에 대비되는 서정적인 선율에 왠지 모를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큰 폭풍과 같이 격정적인 제3주제가 시작되고, 첼로는 화려한 곡예를 벌입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대조적인 진행을 반복한 후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1841~1904)
: 첼로 협주곡 2번 나단조, 작품번호 104 (1895)
Antonín Dvořak : Cello Concerto No, 2 in B minor, Op. 104

체코 출신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자크는 51세 때인 1892년에 뉴욕 국립 음악원의 초청으로 약 2년 반 동안 뉴욕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신세계 교향곡>과 <아메리카 사중주>, 그리고 <첼로 협주곡 2번> 등 드보르자크 최고의 작품들이 탄생했죠. 이 중 <첼로 협주곡 2번>은 뉴욕에서 보낸 마지막 해인 1895년에 작곡되었습니다. 드보르자크가 뉴욕에서 활동하던 첼리스트 빅터 허버트의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죠. 독주 악기와 관현악단을 대비시킨 고전 협주곡 형식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큰 규모와 노래를 부르는 듯한 감성적인 멜로디로 낭만 시대 최고의 첼로 협주곡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작곡된 <신세계 교향곡>과 같이, 당시 드보르자크가 관심이 많았던 아메리카 인디언과

안토닌 드보르자크 / 출처 : wikipedia.org

<첼로 협주곡 1번> 작곡 당시의 쇼스타코비치 / 출처 : rbth.com

흑인 영가가 기존의 유럽의 낭만과 체코 음악에 함께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진정한 국제적인 작품이죠. 이 곡에 대해 브람스는 "이러한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작곡된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내가 썼을 텐데"라고 말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빠른 1악장은 상당히 긴 관현악의 서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서주에서 엄숙한 제1주제가 클라리넷에 의해 제시되고, 서정적인 제2주제가 혼에 의해 연주되어, 서주라기보다는 제시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첼로 독주는 전개부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첼로 독주는 어떤 때는 강력한 영웅적인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노래하는 칸타빌레의 모습으로 다양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느린 2악장은 간단한 가요 형식으로, 독주악기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뉴욕에서 두 해를 보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어려 있죠. 후반부는 카덴차 풍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빠른 3악장은 론도형식으로, 미국과 체코의 지역 음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
: 첼로 협주곡 1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107 (1959)

Dmitri Shostakovich : Cello Concerto No. 1 in E♭major, Op. 107

1953년에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자 변화될 미래를 기대하며 한껏 고양되었던 쇼스타코비치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해빙은 더딘 데다, 재혼한 부인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소아마비 증세로 신체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비에트 정부의 공산당 입당 요청은 더없이 참기 힘든 스트레스였죠. 그는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첼로 협주곡 1번>이 완성된 1959년 여름은 이러한 상황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그해 6월 6일 '소베츠카야 쿨투라'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 곡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썼지만, 음악의 시작과 함께 첼로가 연주하는 네 개의 음이 영화음악 <젊은 호위병>(1947-48) 중 '영웅의 죽음'의 시작과 같다는 사실은 이 곡의 의미가 곧 '죽음'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음악 곳곳에 새겨져 있는 D-S-C-H(D-E♭-C-B) 동기는 죽음의 대상이 스탈린의 희생자가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이 동기는 쇼스타코비치의 독일어식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50년대 이후 그대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영웅의 죽음' 주제도 그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팀파니의 강한 타격 이후에 등장하는 목관악기의 선율에서는 C-H-S-D로 순서가 바뀌어 등장합니다.

1악장은 한껏 긴장을 머금은 첼로가 제1주제, 즉 '영웅의 죽음'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목관악기가 짧은 리듬으로 이를 희롱합니다. 그런데 G음을 중심으로 길게 연주하는 제2주제 역시 긴장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악장 내내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악장은 '보통 빠르기'로 지시되어있지만, 관조적이고 애달픈 분위기로 느린 악장의 역할을 하며, 3악장은 2악장에서 연장된 카덴차로서 내면적인 독백입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마지막 4악장에서 첼로는 악마의 비웃음과 같은 목관과 거인의 발걸음과 같은 팀파니의 연타에 쫓겨 달아납니다. 1악장의 제1주제가 재등장하는 부분은 괴기스럽기까지 하지만, 쇼스타코비치는 해결 없이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는 여전히 절망에서 빠져있던 것이죠.